

「노벨」賞을 위한 財團 =
이스라엘서 設立 결정

「이스라엘」은 노벨상과 유사한 財團을 設置하기로 決定했다.

그러나 이 財團에 基金을 제공할 신비스러운 자선가는 이름을 밝히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內閣은 지난 4월 28일에 「월프재단」(Wolf foundation)을 設置키 爲한 法案을 議會에 提出할 것을 決議하고 이 「월프재단」의 基金은 \$10,000,000 이라고 밝혔다.

이 「월프재단」은 科學, 藝術 그리고 國民間の 平和와 이해증진 분야에서 현저한 功獻을 한 사람들에게 受與할 方針이며 受賞對象者는 全世界에서 選定키로 했다.

世界的으로 有名한 科學者인 「에프 레임·카피르」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 賞의 概念 설정에 關여하고 있으며 또한 이 賞制度의 未來方向에 關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아시아 農業開發센터
「필리핀」에 設置키로 =

아시아 農業開發센터가 「필리핀」에 設置키로 決定되었다.

이 센터는 農業機械의 研究開發施策을 테스트 하고 아시아諸國에 適合한 모델을 만드는데 目的을 두고 이루어진 것인데 情報交換, 專門家의 訓練등을 實施할 것이라고 한다.

人口增加로 貧困에 시달리는 아시아로서는 農業開發의 促進이 不可缺한 課題로 되어있어 ECAFE(UN아시아극동 경제위원회)로서도 이 問題를 일찌기 取級해왔었다.

그러나 米穀의 品質改良에 의한 收穫量의 增加를 노린 「綠色의 革命」에는 一部 成功의 成果를 얻었으나 肥料, 農具등 氣候風土에 適合한

것을 만드는 要求에는 거이 充足되지 못했다.

이 決定에 따라 日本은 1974年度豫算에서 萬 30萬 \$을 同센터에 投資키로 하는 한편 專門家를 派遣하는등 아시아의 農業近代化에 적극적으로 協力할것이라고 한다.

= 高速增殖爐開發에 13億弗 =
美原子力委員會서 投入

에너지 危機를 克服하기 爲하여 美國은 1980 年까지에 에너지源의 自給自足 達成을 指向하는 「프로젝트·인디펜던스」를 내놓았다.

이것은 石油, 石炭, 天然가스등 既存에너지源의 開發促進과 보다 効率的인 利用을 도모함과 同時에 原子力, 太陽熱등 새로운 세대의 에너지源의 研究開發및 實用化를 서두르며 外國에서의 石油輸入 특히 아랍產油國에 對한 依存度를 最終의 程度로 減소시키려는 것이다.

세대의 에너지源으로 가장기대되고 있는 것은 消費한 核燃料보다도

多量의 核燃料(플루토늄)을 生成하는 高速增殖爐이다. 美國原子力委員會는 그 增殖爐가 앞으로 動力爐의 主役이 된다고 보아 이미 13億 \$ 以上の 研究費를 投入하여 渡體金屬冷却高速增殖爐(LMFBR)의 開發을 추진하고 있다.

= 「모샤브」식 영농방식 =
美南部地方에 도입함의

美國南部地方에는 소농들의 協同 農業부락인 「모샤브」식 營農制度가 빈곤한 혹은 農夫들의 生活수준을 向上시키기 爲하여 導入될 것 같다.

얼마전 「포드」財團의 「브라이언트·조지」박사가 多數의 小規模 자작 農家들의 生活向上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키브츠」制度를 視察한바 있었는데 이때 「브라이언트·조지」박사는 토지의 개인 所有와 구매 또는 판매를 協同으로 하는 「모샤브」方式을 적용가능한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